

전신이 긴 털로 덮인 동물을 앙골라라고 한다.

* 앙골라종(Angora): 전신이 긴 털로 덮인 동물들에 붙인 품종명.

토끼 · 고양이 · 양 등에 이 품종이 있다.

① 앙골라토끼 : 잡토끼의 한 품종으로 전신이 십 수cm의 면모(緬毛)로 덮이고 그 장모성은 정상모에 대하여 열성(劣性) 유전을 한다. 원산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프랑스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토끼털을 이용해 온 기록이 있다. 이 종에는 털 빛깔에 따라 십 수종의 내부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백색이 상품가치가 가장 높다. 1년에 3~5회 전모(剪毛)하여 300~450g을 채모한다. 이 종의 면모(앙골라토모(兎毛))는 수질부에 공동이 있으므로 가볍고 따뜻한 털 실이나 직물을 만들 수 있어 농가부업으로 많이 사육한다.

② 앙골라고양이 : 페르시아고양이의 다른 이름이다. 원래 이 고양이가 터키의 앙골라(앙카라)로부터 수출되었으므로 유럽에서 이렇게 불러왔다.

③ 앙골라양 : 털용 양의 한 품종이다. 이름은 원산지에서 유래한다. 아름다운 피모(被毛)는 모헤어라고 불리며, 직물에 사용한다. 암 · 수 모두 유용하며, 수컷의 키 약 60cm, 몸무게 70~90kg, 암컷은 키 약 50cm, 몸무게 50~60kg이다. 피모는 백색으로 1년에 20cm 가량 자란다. 한창 시절의 양의 피모는 명주실과 비슷한 광택이 있는 양질의 울인데 늙을수록 조강(粗剛)해지므로 6살이 지날 무렵에는 채모하는데 부적당해진다. 털은 5~6월쯤에 깎고 산모량은 2~4kg 정도이다. 전모하지 않으면 여름에 자연 탈모한다. 고기도 맛이 있고 식육용으로도 사용된다.

앙골라 토모는 앙골라 토끼털을 손으로 잡아 뽑은 것이다. 앙골라 산양 털은 모헤어라고 부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앙골라 산양과 같이 희고 긴 털이 비슷하기 때문에 앙골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앙골라의 벨루어 가

공이라던가 스웨드 가공한 짧은 모우와 가는 털의 맛이 있는 코트지는 부드러운 태와 가벼움이 우수하다. 양골라 옷의 매력은 다음과 같다. 순백이고, 연하고 아름다운 색으로 염색할 수 있고 부드러운 손촉감과 피부 촉감, 우수한 실루엣, 가볍고 캐시미어와는 다른 누메리감이 있다. 광택이 있고, 따뜻함이 있다. 선명하지 않고, 약하고, 습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드라이클리닝을 하더라도 줄어들기 쉽기 때문에 습기를 제거하여야 하며, 정전기를 발생하여 털이 날리기 쉽다. 흰색의 폭신평신했던 헤어는 빠지기 쉽기 때문에 입고 있던 흰색 스웨터를 벗으면 진한 색의 인너에 흰색의 헤어가 붙는다던가, 데이트 시에 남녀가 서로 포옹한다면 상대방의 진한 색상의 옷에 흰색 헤어가 또는 바대로 흰색 헤어가 진한 색상의 옷에 붙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헤어는 갈수록 고급으로써 고가이다. 세계 산모량의 반 정도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일본인에게는 큰 인기가 있다고 한다.